

재일 한인 축제를 통해서 본 장소의 정치*

이 희 숙**

A Korean Festival in Japan and the Politics of Place*

Heesook Lee**

요약 : 본고에서는 오사카의 이쿠노 한인축제의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민족적 정체성이 어떻게 구축되며, 커뮤니티 내외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그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고려함으로써 재조직되는 문화의 잠재성에 특히 주목하고 싶다. 이러한 역동적 상호관련은 특정한 사회논리와 정체성이 겨루어지는 속에 특유하며 비공식적인 공공권이 축제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대는 특정의 배제와 포섭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연구는 축제를 통해 정체성이 구축되고 끊임없이 협의되는 미시적 수준의 복합적 정체화 과정을 드러낸다.

주요어 : 축제, 장소, 권력, 에스니시티, 재일 한인

Abstract :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Ikuno Korean Festival in Osaka, this article examines and critiques how identities are constructed, and how this process is shaped by the mediation of intra and inter-community concerns.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potential of reorganized culture through a thinking of similarity rather than difference. The dynamic interrelations suggest that festival provides a particular and informal public sphere wherein certain social logics and identities are contested. These discursive arenas are therefore marked by certain exclusions and inclusions. This study shows the complex process of identification at the micro-level through which identification is constituted and continuously negotiated.

Key words : Festival, Place, Power, Ethnicity, Koreans in Japan

1. 머리말

사회의 구분은 공간과 장소에서 구체화된다. 도시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로 부터 세분되어 있다. 즉 그것은 또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작용도 한다. 사람들 간의 차이(difference) 뿐만 아니라 유사성(similarity) 부분도 그들이 점유한 공간과 살고 있는 장소 속에 내재해 있다. 현대도시의 사회적 분화의 주된 근원으로는 계급, 에스니시티(ethnicity), 젠더 및 성적 선호(sexual preference) 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것들은 분화의 근원이며 사람들을 서로 특징 지워 주기도 한다(Short 1996). 가령 현대도시의 공간과 민족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선 민족성의 복합적인 속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다른 이들에 의해 어떤 집단에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정체성(Anderson, 1987; 1991)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의 집단 정체

성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내적으로 구축되는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민족성은 고정된 유산도 아니고 외부적 특성의 결과만도 아니다. 민족적 축제는 도시에서 민족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축제는 장소의 다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도시의 다문화적 구성요소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과 장소는 민족적 정체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도시에서 축제라는 문화적 퍼포먼스(performance)를 통하여 에스니시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80년대에 일본 국내로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으로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재일한인에게도 눈을 돌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이들을 객체 또는 수동적

* 이 논문은 2003년 2월 한국지역지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lisalee@knu.ac.kr)

존재로 다루어 행위주체로서의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한편 최근 재일한인에 의해 지역에 밀착한 새로운 축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어 주체로서의 그들의 행위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호재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재일한인의 문화실천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착안하여 1997년 이래의 참여관찰과 축제를 계획하고 실행해 온 사람들과의 심층 인터뷰¹⁾를 토대로 그 행위의 의미를 고찰하려 한다. 또 관련 보고서나 2차적 자료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축제는 청년층의 재일한인 주민에 의해 매년 행해지는 오사카의 이꾸노 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이다. 물론 이러한 축제는 민족문화의 한 형태로서 특정의 민족 집단이나 특정의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은 결코 아니다. 가령 중국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뉴욕의 Queens 페스티벌, 한국계 미국인의 소매 자영업자 중심의 추석 축제, 런던의 서인도 제도인들에 의한 노팅힐 카니발, 나아가 세계의 수많은 도시의 거대한 축제가 된 아일랜드계 주도의 성 패트릭 기념일 퍼레이드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축제는 도시의 하위문화(subculture)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문화가 상대적 자율적 시스템이며 정주 사회(host society)와의 제 관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 역동성을 통해서도 변화한다고 할 수 있는 맥락에서와 같이 민족 축제는 어떤 시점의 횡단면 만으로는 파악이 불충분하므로 그 진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 요청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체화가 구축되고 끊임없이 협의되는 과정을 통하여 검토할 때 비로소 미시적 수준의 정체화 과정이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한인의 문화적 퍼포먼스를 통해 커뮤니티 생활에 어떠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는가, 또 나아가 그 축제가 '권력', '장소', 그리고 '정체성'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일본내의 민족 집단의 문화적 퍼포먼스에 초점을 둔 기존연구는 극히 드문 가운데 Iida(1997)는 재일한인 축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표상하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그는 오사카에서 행해져 온 3가지의 민족축제를 다루어 그것들의 담당, 내용,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착안함으로써 의식된 표상차원

을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축제들은 일정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민족문화'의 개개의 요소를 통합하고 다양한 소집단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 즉 축제를 민족문화운동의 보다 고차원적 단계를 도모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재일 사회가 종래 인수해 온 남북의 정치대립이나 세대에 의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민족이라는 표상의 성스러운 성격과 애매성에 의해 초월하고 포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기존의 퍼포먼스 연구와 마찬가지로 집단 정체성의 상징으로서의 문화적 이벤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보다 넓은 일본사회의 맥락이나 특정의 지역적 맥락으로 그 축제를 위치 지우기가 어렵다. 나아가 창출자 축의 특별한 의도, 그리고 주관성과 공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축제가 가진 많은 중요한 점을 간과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축제라는 퍼포먼스가 어떻게 사람들을 반영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성하고 구축하는가 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실천과 정체성, 그리고 장소 및 공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동시에 개별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양자를 다룸으로써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시정치(micro politics)가 축제 속에 어떻게 취해지며, 사람들의 행동이나 감정과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해명하려고 한다. 이것은 동시에 정치가 주관성의 공간과 사회적 공간 속에서 보이는 양의성(ambivalence)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시사하기도 할 것이다.

2. 재일한인 축제의 기원

이 장에서는 기원이 되는 재일한인 축제의 생성 배경과 그 조건을 살펴보겠다.

이꾸노 민족문화제는 오사카市の 이꾸노(生野)區에서 시작하여 1983년이래 매년 가을에 개최되어 왔다²⁾. 그 축제는 일본에서 행해진 첫 한인 축제이며, 그 후 10년 간에 다른 세 개의 주요한 한인 축제의 발전도 고무시키게 되었다. 1990년에 시작된 고베의 '나가타 마당'과 후쿠오카의 '3.1 문화제', 1993년에 시작된 교토의 '히가시쿠조 마당'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京阪神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축제가 크게 확산되었는데 이 지역은 재일한인의 집중

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인 풀뿌리 운동(阪神教育闘争 1948; 오사카 한인 아동보호자 회에 의한 민족학급 설치요구운동 1970~90년대)의 원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인축제 중에는 지역주민과의 공생을 도모하거나 많게는 다문화 교류의 장을 위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축제의 지향이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도 이쿠노 민족문화제는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드물게 여전히 민족문화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쿠노 축제도 부단히 변화를 겪어 왔으며 민족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되고 조정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본고의 전개에서 드러날 것이다.

오사카의 도시 속의 주변지역(inner-urban periphery)에 위치하는 이쿠노는 일제 강점기 이래 일본의 한인 커뮤니티와 그 문화에 있어서 핵심적이며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한인 정주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다³⁾. 왜 이쿠노에는 그렇게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일까? 1920년대에 오사카가 대규모의 산업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다. 1923년에 제주도-오사카 간의 직접항로가 생겨난 후에는 제주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오사카로 향했다(Sugihara & Tamai, 1986). 나아가 제주도로부터의 도항자가 증대한 주된 기반으로 가족 결합을 통한 연쇄이주(chain migration)를 들 수 있다. 1930년대부터 오사카 거주 한인인은 많은 소규모 공장이 입지하는 시 동부의(현재의 生野區와 東成區)에 집중 거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미 이카이노(飼猪野)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되었다⁴⁾.

1945년의 일본제국 붕괴 시에 200만을 넘는 한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중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귀국한 반면 나머지는 일본에 머물러 오늘날의 재일 정주 한인의 기원이 되었다. 전후 혼란의 와중에 이렇게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자조조직을 결성했다. 좌익에 의해 만들어진 재일조선인 연맹(조총련의 전신)도, 우익에 의한 재일조선 거류민단(민단의 전신)도 강한 애국주의와 반일을 취하고 있었다. 나아가 동맹국들에 의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시기에 그 연장선 상에서 재일 한인 커뮤니티는 한반도의 분단을 그대

로 반영시켰다. 그 후 한국 전쟁(1950~1953)에 의한 남북한의 대결은 일본 정주 한인의 분열을 강고히 했다(Ryang, 1997).

이쿠노 민족문화제는 사회복지업무를 맡았고, 聖和社會館의 관장이던 김덕환에 의해 창시되었다. 한인 축제의 아이디어는 어느 스터디 그룹의 멤버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Kim, 1997). “이쿠노에 사는 한인인은 정말 많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하지 않는 것일까? 슬픈 일이다.” Kim은 이 제의를 들고 민속의상을 두른 재일 한인 1세가 즐겼던 농악에 대해서 유년기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 수행에 관한 기억은 그에게 조국 한국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쿠노에 거주하는 한인을 모아 즐거운 문화 이벤트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1982년부터 그와 많은 젊은 한인2세, 3세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벤트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축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쿠노에서 태어난 李영녀라고 하는 여성의 활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당시의 그녀에 대한 Kim의 인상은 “훌륭하고 영감에 빛나는, 이쿠노 축제 구상을 샘솟듯이 해낸 인물”이라는 것이었다(Kim, 1997).

후속세대인 한인이라고는 해도 그간 그것은 동질적인 통합체는 아니었다. 가령 세대나 가족이라고 하는 배경을 보아도 축제의 창설자들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산경험(diasporic experience)을 바탕으로 하는 동포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축제의 슬로건은 ‘하나가 되어 키우자. 민족의 문화를! 닦을!’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족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같은 문화에 속하고 있다는 공감을 안겨주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다. 이벤트는 주말의 이틀 간에 걸쳐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드디어 1983년 10월에 이쿠노에서 실행되었다. 원래 축제는 마당극, 농악, 민요의 가창, 탈춤, 부채춤, 결혼가장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축제의 소식은 바로 지역으로 흘러들고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지방 뿐만 아니라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간토오지방의 한인도 관객으로 몰려들어 약 3000명의 남녀 및 어린이가 모였던 것이다.

축제의 리더인 Kim은 지문채취거부운동⁵⁾이라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관계했지만 그는 남북한의 어딘가를 지지하는 기존의 정치단체와 같은 조직적인 활동을 이 이벤트에 반영하려는 의도는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민단 혹은 조총련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의 일본인 주민과 한인 커뮤니티 간에 어떤 벽을 넘어서 이 축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문화의 열마는 일본의 정주한인 사이에도 이어져 왔다. 이를테면 유교에 기반한 조상숭배, 전통의례 시의 한복 입기, 식생활에서의 김치를 먹는 습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꾸노와 같이 정주한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은 일본의 문화권 내에 이루어져 점차 조국의 문화로부터의 거리 내지는 시차를 두게 되었다. 커뮤니티 수준에서 정주한인은 주류문화와 문화적 형태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한편 기존의 지역축제와 같은 공식적인 문화이벤트에 합류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축제에 '민족문화'의 관념을 채용하여 1980년대 한국에 있어서의 문화운동 속에 재생했던 음악이나 춤, 그리고 연극이라고 하는 민속 문화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모방하였다. 그러한 축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잃어버렸던 '민족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에 가장 일반적인 문화적 스타일의 하나인 '마츠리(祭)'의 형태를 통하여 그들 자신의 축제를 표현한 것이다. 마츠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성, 신도를 토대로 하는 종교성, 특정지역에 밀착하는 장소성, 개방성, 정기성을 공통적으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전통성, 종교성의 면에서 이꾸노 축제는 일본의 마츠리와는 구별되지만(Iida, 1997), 장소(밀착)성, 개방성, 정기성이라는 점에서는 그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이꾸노 민족문화제는 일본의 축제의 형태에 한국의 문화요소를 선별적으로 취하는 하나의 문화형태로 발명되었다.

여기서 이꾸노 민족문화제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 조건을 구체적 제시 해보기로 하겠다. 첫째, 이꾸노 전체 거주자의 4분의 1(약 4만명)이 한인이라는 인구의 임계량(critical mass)이다. 이것은 한인 스스로를 표출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둘째, 일본인과의 일정한 문화적 거리이다. 이꾸노의 일본인 주민에게도 다층적인 사

회구성(가령 유입시기에 따른 차)이 보이지만 한인에 대해서는 같은 일본인이라는 구도로 다루어져(Harajiri, 1995) 한인과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근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지역 내에 이들은 혼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스스로의 일본문화에로의 완전한 동화에 대한 저항, 한인을 동등한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데 대한 일본인 주민의 대항이 상호 배타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게다가 이꾸노 한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한 독자적인 국지(local)노동시장의 존재는 민족 산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Lee, 2002a) '같은 공간의 서로 다른 삶'이나 미약한 상호교류에 머물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 셋째, 새로운 세대의 문화 리더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세와는 달리 단절되었던 문화 중 일부를 선택하고 다시 습득하여 문화요소를 재배치할 수 있는 역량과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세대로의 교체야말로 이 축제를 낳게 한 산실이라 할 수 있다.

3. 이꾸노 민족문화제의 발달과정

1) 도시공간을 둘러싼 논쟁

1970년대 한인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그보다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 사회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동시에 정주한인은 보다 좋은 생활을 할 기회를 얻었다. 많은 2세나 3세는 일본에서의 영주를 희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열망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와는 조화하지 않는 것이었다(Onuma, 1993).

이런 시도는 정주한인을 두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나는 동화이고 다른 하나는 비동화이다. 신체적인 외관으로는 일본인과 정주한인을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일본에 태어난 한인은 모어로서, 일본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문화에 관해서는 일본지향이였다. 정주한인은 자신들이 일본인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똑같다고는 간주되지 않는다고 의식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한인의 주택 입주나 임대 관행 명백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다. 밀집지역에 붙여진 광고에는 '조선인 거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당당

히 남아있었다. 1971년에는 KCC(제일한인 크리스토프 교회관)가 설립되고 지역의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서 기능했다. 주택임주나 교육의 문제는 KCC에 의한 지역의 각 기관과의 협의으로 점차 개선되었다. 나아가 그 활동의 또 하나의 결과로서 어머니학교가 1977년에 聖和社會館의 정기적인 클래스로서 개강하게 되었다. 이들 활동에 관여했던 젊은 한인들 중에는 정주한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보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사람도 있다. 게다가 이꾸노 지역 자체도 1970년대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꾸노의 한인도 급속한 사회적 경제적 향상을 경험하고 직업의 기회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젊은 세대간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면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직업의 다양화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강한 동포 네트워크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지역 내의 민족노동시장 속에 일하고 있었다. 특히 플라스틱, 샌들 생산과 같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인이 많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분화는 외국인으로서의 한인과 시민 또는 주민으로서의 일본인간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격리를 설명해준다. 일본인과의 문화적 유사성이 높아져감에도 불구하고 한인은 지역수준에 있어서조차 주민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타자'로서 간주되었던 것이다. 모든 의미에서 이러한 상황은 정주한인 간에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꾸노 민족문화제는 많은 분규 속에서 비로소 개최될 수 있었다. 축제의 전야제는 구 이카노의 좁은 도로에서 열렸다. 그 퍼레이드대는 웅장한 소리를 내뿜는 다채로운 민속의상을 한 농악대로 구성되어 행진을 했고 그 뒤에는 200여명의 수행자 그리고 관객과 지원자가 따랐던 것이다.

퍼레이드의 수행도 많은 분규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찰이 퍼레이드를 시위로 오해했던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또 일본인 주민은 퍼레이드의 통로가 '단지리⁶¹⁾'의 행로와 중복되어 그것의 청결함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퍼레이드의 저지를 촉구하였다(Kim, 1989b).

준비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행 개최지의 확보의 문제였다. 축제의 주최 측에서는 학교를 빌리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한인의 아동들이 다니

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도 지역주민에 의해 구성되는 모임인 町内會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점에서 이 모임의 멤버가 강한 권한을 가지고 간섭해오기 때문이다. 거기에 사는 많은 한인이 영주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주민(시민)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게다가 그 모임으로부터는 일반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다. 오사카 시 교육위원회에 속하고 이꾸노에 있었던 외국인인을 위한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 초등학교⁷⁾를 사용할 허가를 얻었으나 거기에는 축제를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첫해의 축제는 그 교정에서 행해지고 무사히 종료되었다. 그러나 실은 축제가 열리는 도중에 그것도 일찍부터 町内會 간부를 비롯한 일본인 주민들로부터 학교장에게로의 전화가 쇄도했다. 그들 중에 몇 명은 학교를 방문하여 이 축제에 대한 항의를 했다. 그들이 입을 모아 요구한 것은, "한인에게 우리들의 학교를 이러한 식으로 사용하게 하지 말라.", "두 번 다시 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 다음해의 축제 개최지를 빌리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1회제와 같은 학교를 빌리려는 요청은 거절당했다.

축제의 실행위원들 중 지역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회운동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최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위와 같은 급진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내의 많은 한인들은 그러한 행위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전혀 좋은 대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안으로서 1년마다 지역의 학교를 돌아가면서 장소를 제공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중학교의 교장으로부터 나왔다. 그 제안이 이꾸노의 한인축제를 예년의 행사로 정착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채택된 것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한인에 대한 당시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구별되는 주민들 간의 도시공간을 둘러싼 다툼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시간이 흘러 일본인 주민에게도 한인축제는 이꾸노에 있어서 연례의 행사로서 어느 정도 인정되게 되었다.

2) 정체성을 찾아서

여기서는 축제의 주도에 있어서의 심각한 불화를 일으킨 문제, 즉 축제를 정주한인의 독특한 문화 이벤트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국 문화의 연장선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주목한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지향한 문화부흥운동이 널리 전개되었다. 실제 이꾸노 문화제 실행의 초기에 민요, 춤, 민속극 등의 예능적 기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갔다가 다시 이꾸노에 돌아와 그 실기의 강사가 되었던 젊은 재일한인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꾸노 민족문화제는 한국의 움직임과 직접 관련되고 영향 받았던 것이다.

당시 축제에 영향력을 가진 이의 상당수는 2세였다. 대체로 그들은 조국과 조국의 사람들을 동경하고 또 그들과 친밀하게 되려고 했다. 한편 1987년이 될 때까지 본국의 한국인은 일본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외국여행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급진적인 문화 운동가가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서서히 자유로이 왕래하게 되고, 이꾸노에서의 축제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가들은 한국의 당시를 풍미하던 운동에 정주한인도 참가할 것을 요청하고 또 축제도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양자의 협력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상호이해에까지 미치기는 곤란하였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많은 면에서 판이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의 정주한인을 '진정한 한인'의 일원으로 보다 '재외한인'의 한 집단으로서 간주하여 온 것이다. 반면 많은 정주한인은 이미 본국의 사람들과 그들 자신은 다르다고 자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양자간의 운동의 주체에 관한 인식에는 큰 격차가 가로 놓여 있었다. 한국의 활동가에게 그 주체가 '민중'으로 여겨졌으나⁸⁾, 정주한인에게 있어서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나 문화적 관습 등의 차이에 대해서도 의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은 정주한인에게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법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불러오고 또 축제의 주도권에서의 불화를 발생시킨 결과가 되었다. 본국과의 강한 연계를 유지하고 본국문화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스스로를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것으로서 의식하여 독자의 문화를 창조할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 전자는 본국에의 귀속관을 통하여, 후자는 한국문화와도 일본문화와도 다른 제3의 문화 창조에 의해 정체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각각 믿고 있었다⁹⁾.

이러한 본국연계파와 문화창조파 간의 분열을 반복해가면서 당시의 리더인 Kim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Kim, 1997). "1987년과 그 다음해는 정말 힘들었다. 상황은 축제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대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결국 축제의 주도권이 문화창조파에게 주어져 그들의 정체성은 새로운 문화 속에 재위치 지어졌다. 그 축제의 지도자에 의해 새로운 문화를 지향한 재일한인의 민속무용, 음악 등을 재발명하려는 노력은 수입된 문화요소를 넣기는 하지만, 차이를 계속 유지함에 의해 정주한인의 정체성의 한 각편(version)으로서 수행되게 되었다. 드디어 기원이나 본국문화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찾는 일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창조된 문화는 진정한 한국문화도 일본문화도 아닌 '재일(한인) 문화'로서 간주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를 향한 축제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민족문화'의 관념을 채용해 오고 있다. 정체성의 탐구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양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관념은 본국의 문화에도 일본의 문화에도 대항하는 것으로서 여겨지고 또 하나의 본질적인 주체에 고정되어 버리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정체성은 빈번히 '자신/타자'의 이원론을 통하여 구축된다. 실제 '일본'과 '한국'간에 나누어진 그 자신이라는 것은 정주한인의 문화표현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다¹⁰⁾. 그러나 본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한인에 있어서도 정주한인의 중간 내재성(in-betweenness)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진정성의 결여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표상되는 경향이 있었다(Iwabuchi, 2000).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산의 경험이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빼앗는 것이 되고 이는 Hall의 제안(Hall, 1992)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되기도 한다.

3) 축제와 한인사회

이꾸노 민족문화제의 창설자들이 조직적·정치적인 운동으로서 축제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 얼마간의 사람들은 인권에 관한 다른 사회운동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그러한 창설멤버들은 이 축제를 다른 축제와 차별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즉 지역수준에서 모든 한인이 함께 모이고 지역주민들 앞에서 정주한인으로서 공적으로 가시화하고, 그들 자신의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Kim은 이꾸노 민족문화제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커뮤니티의 지역적·민족적 의식을 형성시키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사히신문(1987년 10월 25일)은 이러한 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Kim에 따르면 처음 3년간의 축제는 억압된 무엇인가를 내뿜는 것 같았다. 그리고 4회째의 축제부터 겨우 ‘마쯔즈꾸리(지역 가꾸기)’의 의식이 싹트었다고 한다. 또 후에 의하면 일본의 축제에서는 모든 수행자가 관객과 자연히 마음으로부터 즐기고 있는 반면에 아직 우리들은 뭔가가 너무 많은 힘이 실려 있다. 나는 축제를 통하여 정주한인사회에 있는 우리들의 민족적인 뿌리에 다시 돌아가길 희망하고 동시에 젊은 세대들에 의해 자연스러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

Kim은 1995년에 이꾸노 민족문화제의 실행위원회 회장을 사직했다. 그 이래의 후임에는 3세가 맡아 하고 있다. 지도권과 위원회멤버의 전체가 2세로부터 3세로 바뀐 것이다. 현행의 축제는 20대의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사람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꾸노 민족문화제에서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는 지역의 민족학급¹¹⁾의 존재,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면에서 긴 역사를 가진 것과 젊은이들의 지역유입이 유지된 점에 힘입은 바가 크다¹²⁾. 예를 들면 축제 때 유치원의 아동들이나 초등학교의 민족학급 아동들이 퍼포먼스에 참가하기 위해 특별히 예행 연습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축제의 슬로건은 당초의 그대로이다. 또 축제는 남성보다도 많은 여성에 의해 계획되고 참여되어 왔다¹³⁾. 현재에 실행위원으로서 ‘일본인’의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여전히 매년 4월에 수립되어 축제종료 후의 11월에 해산된다. 핵심적 규

정은 초기와 다름없이 유지되어 왔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변화해왔고 축제가 함의하는 바도 또한 바뀌어져 왔다. 한 예를 든다면, 민속극은 수행형태로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그 대사로 볼 때는 일본사회에 대한 고발에서부터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기반한 극으로 바뀌게 되었다. 가령 1987년에는 남북 통일을 테마로 한 민속극이 행해졌는데 이는 한국의 젊은이들과의 교류가 민속극에도 크게 반영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축제는 특정의 문화적 전통 속에 오늘날의 일본에 있어서의 정주한인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에 직면하고 새로운 문화와 정체성의 구축의 수단으로 바뀌어져 왔다.

현재의 축제 지도자는 보다 즐거운 축제일을 제공하고 모든 관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축제를 희망하고 있다. 이벤트는 많은 젊은 세대에 의해 전해지고 그것과 함께 기능이나 방향성도 변화해 왔다. 지금의 축제는 즐기게 해주는 그리고 소비되는 것으로 되었다. 과거의 멤버들은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만 현재의 멤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축제의 설립자를 포함한 이전의 멤버들은 축제를 축제의 기획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방향 지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감하다. 그래서 축제의 의미나 가치에 관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실행멤버 간에 얼마간의 관점차이를 엿볼 수 있다. 가령 이전의 주최자의 입장에서는 축제가 단순한 여흥적 이벤트로 바뀌어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¹⁴⁾. 그들은 축제 원래의 목적은 거의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전성기에 수천 명이나 달한 관객이 현재 수백 명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축제의 상징적인 의미만큼은 유지해 가길 원하고 있다.

이꾸노의 한인은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이라는 의식을 보다 강하게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 주민은 여전히 이꾸노 한인을 완전한 지역주민으로서 받아들이는 사고에는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합법적인 주민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빈번히 정주한인의 민족주의를 자극한다. 무엇보다 ‘억압자(the dominant)’와 ‘피억압자(the dominated)’ 간에 존재하는 길게 끌여온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축제에 관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제의 제작에 일본인을 참여시키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과거 멤버들 중의 소수는 지역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 또한 큰 문제로 의식하고 있기도 하다. 그와 같은 고립은 지역주민과의 부가적인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 지역주민 집단들간에는 여전히 상호·배타적인 면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초기의 단계와 비교하면 정주한인과 지역의 일본인과의 관계는 확연히 개선되어 왔다. 가령 축제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기조차 하는 일본인 주민도 생겨난 것이다. 또 이미 본 것과 같이 코리아 타운·로드의 재정비 과정에서는 커뮤니티 간에 공생의 가능성이 내비친 것도 좋은 보기이다.

4. 장소의 정치

이 장에서는 왜 정주한인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시간—공간에 있어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이 축제를 발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는가? 에 관해 주목한다. 만약 이꾸노의 이벤트가 순수하게 우연히 축제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창출자 측의 그 축제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한 주장을 허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축제를 통하여 행해지는 정치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꾸노에서 한인은 전 인구의 1/4을 점한다. 또 그 한인의 약 70%가 제주도 출신자이다. 그러나 그들은 태어난 마을이나 친족, 현재의 국적(남한 혹은 북한) 등에 의해 구별된다. 그래서 수많은 작은 공동체가 발전해왔다. 예를 들면 출신마을을 기초로 하는 친목회, 혈연 기반의 종친회, 또는 정치적 이념 기반의 민단, 조총련 등과 같은 것이 있다.

1980년대 초두 이꾸노의 한인 사회는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으로도 1세에 의한 영향력이 컸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생활해 왔고 민단 혹은 조총련의 어딘가를 지지하고 있었다. 2세는 일반적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차별과 한인으로서의 궁지가 낮은 경험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조국에 돌아갈겠다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에 반해 3세는 일본의

정주한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며 출현해 왔다. 많은 한인 3세는 당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하여 아이를 가질 즈음이고, 소수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일본에서의 영주를 결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본에서의 영주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전환됨에 따라 젊은 한인들 중에는 독자적인 축제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나아가 그들은 일본에 계속 살게 되기 위한 원천적 요소로서 축제를 고려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의 어느 곳에서나 연중 각종형태의 '마츠리(祭)'가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꾸노에서도 일본의 많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신도에 기반하는 지역주민의 축제가 매년 행해져 오고 지역의 신사가 그 이벤트의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지적한 일본 마츠리의 종교성을 대변한다. 이꾸노에 사는 한인 어린이는 지역의 일본 축제에 참가하고 있었으나, 한인 어른들의 대부분은 참가하기를 꺼려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의 강요된 신사참배의 기억으로 신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역의 일본축제에 한인 어린이가 참가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한인 자신들의 축제를 창출하려고 하는 열망과 용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인들에게 있어서 축제는 동시에 자신들을 지역 속에 가시적인 존재로 하기 위해서도 최적의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아사히신문(1987년 10월 25일)에 의하면, 이영녀는 퍼레이드 중에 “우리들은 조선인이다. 우리들은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감정을 가졌다고 회상한다. 그들은 움지에서 사는 방식을 그만두기를 바라고 넓고 열린 공간에 드러내고 싶어 한 것이다(Maher and Macdonald, 1995).

그들은 지역수준에 있어서조차 전체 사회나 문화의 속에 충분히 잠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도적 차별이 완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주를 보증할만한 커뮤니티의 공적인 문화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는 공공권(public sphere)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기존의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지역 수준에서 통합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바

로 이러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필요에 의해 문화의 보충이 고무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전략적으로 일본의 주류사회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문화의 하나인 축제의 형태를 차용한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축제가 기존의 지역의 일본축제와는 다른 수행이 될 것을 희망하였고, 축제의 틀 속에 모국의 문화요소를 선택적으로 차용하고 모방했다. 그 축제는 그들 자신이 체류자(sojourners)로부터 정주자로 바꾸어짐과 동시에 임시의 거주지였던 이쿠노가 영주의 장소로 변용됨을 표명하는 것이었다. 축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역 속에 '보이는 존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축제의 발명에 있어서 정주한인은 단순히 저항민족주의로 강력한 지배언설에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문화적 차이와 긍정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필요에 응한 것이다. 나아가 축제의 발명을 Bhabha(1994)에 비추어 말한다면 기존의 사회적 구축의 부정이 아니라 그것들의 시간, 용어, 전통의 재협정의 내지는 재편성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음악이나 춤의 표현을 통한 축제는 개별적이며 사회적인 정체성의 쌍방을 취하게 됨에 따라 어떤 경험을 창조하고 구축시킨다. 축제는 개인 속의 사회와 사회 속의 개인, 그리고 신체 속의 정신과 정신 속의 신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Nash(2000)에 의하면, 춤이나 음악을 통한 수행은 신체적임과 동시에 사회적이고, 자신 내지는 개인의 감각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집합적인 경험 내지는 공유된 정체화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정체성은 속으로부터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생겨난다. 또 그것은 물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수행 속에 생겨나는 과정이다(Firth, 1996). 이처럼 수행자들 뿐 만 아니라 관객에게도 문화적 가치를 접합하고 집단적 현신을 연출한다고 하는 양면에서 축제는 재일 한인의 정체성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축제를 통해 생산되는 공간에 주목해 보자. 축제 전날의 퍼레이드에 사용되는 도로, 당일의 수행을 위한 학교 운동장이라는 공간은 실제 일시적으로 사용될 따름이다. 그러나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거주 공간은 구조화된 공간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

려고 한다.

전야제의 퍼레이드 동안 주최자는 이쿠노의 장소감을 재생산하려고 한다. Kim은 이카이노에서의 첫 퍼레이드를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Kim, 1997).

“1983년 10월 15일 오후 3시. 화려한 색의 의상을 차려입은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聖和社會館에 모였다. 농악대의 퍼레이드를 위해서 징, 뿔과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퍼레이드의 선두에 서서 도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출발하려고 해도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거기서 성장하고 생활해 왔으나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거리를 걸어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몸이 떨려왔다. 만약 다른 장소였다면 나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당시 나는 30대 중반이었다. 물론 근처의 사람들은 내가 한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민속의상을 하고서 나가는 결코 쉽지가 않았다. 결국 누군가에게 떠밀린 듯하게 거리로 나가게 되었다. 그것은 감개무량 그 자체였다. 지역의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인들에게도 우리가 갑자기 한인으로서 집단으로 드러낸 모습에 커다란 놀라움을 가져다 준 것 같았다.”

1973년 많은 일본인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이카이노'라는 지명은 '조선인부락' 내지는 한인계토라고 낙인되었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는 이유로 지도상에서 삭제되었다¹⁶⁾. 그러나 정주한인의 대다수는 '이카이노'를 이산경험이 뿌리박힌 '집(home)'으로서 여겨졌다. 이카이노의 재생산은 거기에 그들의 집이라고 하는 재기억을 부여하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聖和社會館과 미유키도오리 상점가(현지에서는 朝鮮市場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구 이카이노에 위치하고 있다. 이쿠노 민족문화제의 수행을 통하여 그 곳은 이카이노의 보다 유동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중심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⁷⁾.

축제의 결과로서 한인 정체성은 '민족/인종주의(ethnic/racism)'에의 대응으로서 규정되었지만 그것은 또 자신의 재구축 및 공간의 생산이라는 창조적 과정이기도 했다. 축제를 통해 불명예를 입혔던 장소와 정체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즉 '조선인부락'이라는 장소를 한인지역이라는 장소

로, 숨어있다고 하는 존재감각을 정주한인으로서 보이는 존재라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들 한인은 문화적 수행을 통해 집단으로서 스스로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축제의 창출은 관념의 단순한 표현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축제라는 것은 관념의 배후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현실을 의례화하는 것이다.

한편 이꾸노에는 특기할 만한 공간의 변용이 일어났다. 미유키도오리 상점가는 근린의 사람들이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중심으로서 발전해왔다. 상점가는 3개의 조합과 115개의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조합 중 86개의 상점이 포함되어 있는 2개의 조합은 1995년에 개장을 하여 '코리아안 타운/로드(Korean Town/Road)'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이 개장으로 전통적인 모양을 한 새로운 출입구와 가로등이 상징적으로 강조되었다.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업적 활기를 띄게 하기 위해 이 장소의 정체성을 구체화시킬 것을 오히려 용감하게 시도한 것이다¹⁸⁾. 그 후 이꾸노는 명확하게 외부로부터도 내부로부터도 정체화할 수 있는 장소로 되었다. Yoshida(1996)에 의하면 조합원의 사회적 속성이 지역 정체성의 적극적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즉 많은 한인 그리고 젊고 새로운 점포주라고 하는 구성은 다른 조합의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재정비 과정에서 남한 아니면 북한의 국적으로 이루어지던 정주한인들 간에 있는 이념의 차이를 넘어 나아가서는 일본인 점포주 까지도 가세하기에 이르러 미증유의 협동이 성취된 것이다(Tani, 1992).

공간적인 전망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다. 이꾸노 민족문화제는 점포주에게 장소감각의 구체적 표현에 간접적으로 향해도도록 한 것이다. 실제 '코리아안 타운·로드'의 계획은 1987년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이꾸노 민족문화제가 정착되기 시작할 무렵이고 축제가 대중매체를 통해 커뮤니티 외부에 알려져 광범위한 잠재적 관객이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에 해당된다. 이렇듯이 축제는 장소 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Harvey(1990)가 지적과 같이 공간의 상품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Castells(1996)이 말한 것과

같이 이꾸노는 여전히 하나의 장소이다. '집(home)'과 세계와의 사이에 이꾸노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소의 공간'은 축제를 통하여 사회적·상징적으로 생성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는 가령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통해 우연히 행해진 것도 있다할지라도, 이꾸노를 중심으로 한 '장소 기반의 정치'(Harvey, 1990; Massey, 1994; Best & Struver, 2000)에 의해 행해진 것은 것이다.

간사이 지방에서 젊은 한인들은 자신의 문화와 함께 그들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하였다. 커뮤니티 센터인 聖和社會館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민족문화제의 산실이며 구심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꾸노를 잘 아는 초기 축제의 창설자들에게는 적어도 이꾸노의 옛 이카이노가 그들 자신을 확인 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 장소로 여겨진 것이다. 축제의 발달 과정을 통하여 구이카이노를 포함하는 이꾸노가 제일 한인의 문화적 결절점으로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꾸노라는 장소는 Massey(199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관계의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결절이며, 경계에 의해서 확정되거나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로 열려지는 다공적인 것이다. 이러한 장소는 결코 단일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다양하며 유동적인 상호작용을 생산 재생산하는 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Yamazaki, 2001).

나아가 그 축제의 공간은 초지방적·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해 이꾸노라고 하는 장소를 넘어서 확장되어 간다. 즉 축제는 여러 종류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공간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한편 축제를 통한 공간의 생산은 겨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축제와 공간의 있어서의 이 역동적인 상호관계로는 축제가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단서는 축제를 통하여 생성되는 공간적 재구조화를 암시하고, 공간이 사회적·상징적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5. 맺음말

이꾸노 민족문화제는 정주한인의 사회적·정치적 표현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일본 및 한

국의 사회적·문화적 동향을 반영해 왔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지역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비해 이꾸노의 경우는 1970년대 초두에 그것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이꾸노 민족문화제는 1980년대 초두의 한인에 의한 주민권 획득의 한 전략으로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이꾸노 민족문화제는 '민족문화'를 구축하는 건설 속에 중요한 매개이고, 퍼포먼스를 통한 장소의 정치로서 그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의 문화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만한 조화로운 것은 아니고 파편의 통일체이고 그 참가자도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동시에 일체화되어 있다. 축제는 광범위한 관계 속에 개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계를 틀 지우는 비공식적 공공권(informal public sphere)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의 사회적 논리와 정체성이 겨루어지는 과정에서 에스니시티의 전체적 개념에 공간과 장소의 역할은 실로 결정적이다. 나아가 '권력', '장소', '정체성'이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활무대는 특정한 배제와 포섭으로 특징지어진다.

재일 한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한 방법으로 문화를 창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창조된 문화가 그들을 정체화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민족적 축제는 한때 살아있었던 전통을 취하여 그것을 소비자 기반의 스펙터클로 변형시키는데 이로써 사회적 관계가 생산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 볼 수 있는 지역축제의 형태와 유사한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동시대의 한국의 재생된 민속문화 요소의 내용을 도입하기 위해 정주한인은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축제는 한국문화뿐 아니라 일본문화의 일부를 모방함으로써 발명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인식되는 '문화'는 독특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문화들과 유사한 관념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체화가 일상생활의 모방의 과정을 통해 구축되고 끊임없이 협의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축제를 통한 문화와 정체성은 양의성, 하이브리드, 중간성, 이중의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퍼포먼스로서 대중에 의해

구입되고 소비되는 소비자의 산물로서 존재한다. 세계 각지의 민족축제에 비해 이꾸노 민족문화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규모 면에서 대량 소비축제에 달해 생기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당면과제는 우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주민들간의 불균형적인 권력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다양해지고 있는 재일 한인 내의 사회관계를 어떻게 화해시킬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혈통, 국적, 역사 등을 포함한 관습적인 문화의 경계의 사이가 점차 애매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체성, 사람들, 문화의 차이에도 관계없이 그것들은 이미 의식적 아니면 무의식적인 모방을 통해 다른 것에 유사하게 되어 온 것이다.

이꾸노 축제는 단순한 문화이벤트가 아니다. 이꾸노에서부터 阪神지역에 영주하는 한인들 중 한정된 사람들만을 끌어당길 정도의 축제의 규모나 기량, 민족적 속성을 강조하는 배타성 등의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성을 가진다. 즉 이 축제는 일상의 사회관계나 실천,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정체성의 협의(negotiation)가 전개되는 환경으로서의 공간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다른 기존의 한인에 의한 움직임들과 같이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단순한 대항적 민족주의의 표상은 아니다. 오히려 축제의 창설은 정체성과 주체의 관념 그리고 오늘날의 민족적 다양성의 관념을 일본 사회에 뿌리게 하는 미시 정치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꾸노의 한인축제는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註

- 1) 제보자의 이름은 축제의 설립자인 김덕환과 이영녀를 제외하고 전원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 2) 본고에서는 민족을 'ethnic/national'로 영역하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민족이라는 용어는 국민국가(nation state)라는 용어에 종속함으로써 국민국가와 nation의 구분은 불분명하다(Sato, 2000).
- 3) 이꾸노구에는 35,000명의 한인이 거주하며 그것은 오사카시의 한인인구의 39%를 차지한다. 그 대다수는 제주도 출신자이다. 오사카시의 한인인 시내 외국인인구의 82%를 접하며 그 다수는 최근의 국외 노동취업

자가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일본에 거주한 한인들이다. 본고에서 일본의 정주한인이라는 호칭은 1945년 이전에 태어난 한인이거나 그 자손을 가르킨다. 또 Field(1993)로부터 차용한 정주한인이라는 용어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그 대다수는 법적지위로서는 특별영주자이며, 일본에 귀화한 사람도 있다.

- 4) 당시 이카이노는 東成區의 북서부에 속하였으나 나중에 분할되어 生野區와 東成區의 일부로서 개명되었다. Yoshida(1996) 및 Fujita and Hill(1997) 참조.
- 5) Tanaka(1995) 참조.
- 6) 오사카의 단지리란 일본의 축제에서 이끌려지는 의례용의 장식수레(山車)에 해당이 된다.
- 7) 구 이카이노에 위치하는 이 학교는 한인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며 당시 전교생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 8) 현재 한국의 민중개념에 대해서는 Yoon(2000)을 참조.
- 9) 이들의 논의의 전자에 대해서는 '방법으로서의 재일한인(Kang, 1988)', 후자에 대해서는 '사실로서의 재일한인(Yang, 1998)'이라는 말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Wender(2000)도 역시 이들의 논의 속에 이쿠노 민족문화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의 차이는 종류라기 보다는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Takeda et al, 1995).
- 10) '일본인'의 등장과 '한인(조선인)'과의 유사성간의 구식민지적 조우로부터, 구 식민지적인 예측의 문제로서의 모방의 양의성(ambivalence)이라는 문제가 나온다(Bhabha, 1994).
- 11) 민족학급이란 일본공립학교의 외국인 생도의 학반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이쿠노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인아동이 한국민속예능이나 한국어에 접하는 학반이 설치되어 있다. 축제초기단계에서부터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회는 독자의 문화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으로서 축제를 지원해왔다.
- 12) 이쿠노민족문화제와는 달리 가령 교토의 '히가시구조마당'과 같이 몇몇의 한인축제의 운용에서는 젊은 멤버에 의한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13)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민족축제는 자주 보여지는데 전술한 영국의 노팅힐 카니벌의 경우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면, 재일한인의 경우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 속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높다는 것은 어떤 함의를 지니는 것일까? 줄고(Lee, 2002a; 2002b)의 재일한인 구직 네트워크에 비추어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커뮤니티를 넘어선 공식적 네트워크(formal network)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의한 민족자원의 향유가 큰 만큼 여성은 일본사회로의 편입(in corporation)이 보다 빨라져 직업구성상에서도 젠더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정체성의 신체적 표현에 있어서도 재일한인의 여성 쪽이 보다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것은 아닐까? 민족 집단 내의 젠더 분기는 균질의 커뮤니티라는 통념을 깨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다른 기회에 자

세한 논의를 하고 싶다.

- 14) 최근의 축제에서 공연자로서 참가한 과거의 조국연계과 계열의 제안자인 한 사람은 퍼포먼스의 리듬이 원래의 것과는 다소 다르며 오히려 서양양식에 가까워져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현재에도 자주 축제의 공연자로서 참석하고 있다.
- 15) 지역에 있어서의 배타성에 대해서는 Tani(1992) 및 harajiri(1995)를 참조.
- 16) 그 지명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이 곳으로 이주해 온 일본인이며, 그들이 이쿠노지역의 다수집단이었다. 한편 토착일본인은 지명폐지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한인은 그 논의에서조차도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자에 있어서 이카이노라고 하는 구 명칭은 그들의 기억으로부터 간단히 삭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명칭을 각각 계속 사용하려고 해 온 것이다.
- 17) 이들의 들은 매년 농악대의 퍼레이드에 통과되는 중심 장소이다. 그러나 그 통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틀째의 축제 개최지의 장소에 맞추어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 18) 또 하나의 설명으로서 1988년의 서울 올림픽에 의한 한국의 위상 향상을 들 수 있다.

文 獻

- Anderson, K. J., 1987, The idea of Chinatown: the power of place and institutional practice in the making of racial categor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7, 580-598.
- Anderson, K. J., 1991, *Vancouver's Chinatown: Racial Discourse in Canada, 1875-1980*,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Best, U. and Struver, A., 2000, The politics of place: critical of spatial identities and critical spatial identities, *the 2nd ICGG conference*.
- 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 Castells, M.,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 Field, N., 1993, Beyond envy, boredom, and suffering: toward an emancipatory politics for resident Koreans and other Japanese. *Position*, 1, 640-670.
- Firth, S., 1996, Music and identity, in Hall, S. and Gay, P.D.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Sage, 108-127.

- Fujita, K. and Hill, R. C., 1997, Together and equal: place stratification, in Karan, P. and Stapleton, K. (eds.), *The Japanese Cit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05-133.
- Hall, S., 1992, New ethnicities, in Donald, J. and Rattanis, A. (eds.), *'Race', Culture and Difference*, Sage, 252-259.
- Harajiri, H., 1995, Transformed and produced drama: the Japanese and Koreans in Ikuno, *Horumon Bunka*, 5, 105-113. (J)
- Harvey, 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 Iida T., 1997, The festival and ethnicity of Koreans in Japan, in Nakano, T., Ikeda, T. and Yamanaka, H.(eds.), *Religion and Nationalism*, Sekaishisoshu, 169-193. (J)
- Iwabuchi, K., 2000, Political correctness, postcoloniality, and the self-representation of 'Koreanness' in Japan, in Ryang, S. (ed.),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Routledge, 55-73.
- Kang, S., 1988, 'Zainichi' as method: in response to Yang Tae-ho, in Iinuma, J. (ed.), *Koreans in Japan: The Value of Their Existence in Japanese Society*, Kaifusha. (J)
- Kim, D., 1997, A message from Ikuno in Osaka, *Gulbang*, 21, 2-23. (J)
- Kim, D., 1989a; 1989b; 1990, A new situation in Ikaino, *Chejudo* ①~③. (J)
- Lee, H., 2002a, *Korean Migration in the Modern Era and the (Re)Shaping of Social Space*, Ph. D. Dissertation at Kyoto University.
- Lee, H., 2002b., Job search and network dynamics: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of Koreans in Japan, *Geographical Review of Japan(Ser. A)*, 75, 183-194.
- Maher, J. C., and Macdonald, G. (eds.), 1995, *Diversity in Japanese Culture and Language*, Kegan Paul International.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ash, C., 2000, Performativity in practice: some recent work in cultu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 653-664.
- Onuma, Y., 1993, *Beyond the Myth of Singular National Society: Koreans in Japan and the Management Organization of Immigration*, Toshindo. (J)
- Ryang, S.,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Westview Press.
- Short, J. R., 1996, *The Urban Order: An Introduction to Cities, Culture, and Power*, Blackwell.
- Sato, S., 2000, The dynamics of nationalism: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nationhood in Germany and Japan, *Sociological Review of Japan*, 51, 37-53. (J)
- Sugihara, K., and Tamai, K. (eds.), 1986, *Taisho, Osaka, Slum*, Shinhyoron. (J)
- Takeda, S., Kang, S., and Kato, N. (eds.), 1995, A perspective of residing in Japan, *Shiso no Kagaku*, 28, 54-78. (J)
- Tanaka, H., 1995, *Foreigners in Japan*, Iwanami Shinsho. (J)
- Tani, T., 1992, The ecological study of ethnic community, in Suzuki, H.(ed.), *Interpreting a Modern City*, Mineruba Shobo. (J)
- The Committee of Ikuno Ethnic/National Cultural Festival, (ed.), 1987; 1988; 1995, *The Report of Ikuno Ethnic/National Cultural Festival*. (J)
- Wender, M., 2000, Mothers Write Ikaino, in Ryang, S.(ed.),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Routledge, 74-102.
- Yang, T., 1988, Shared existence/shared lives/shared feelings: Questions for Kang Sangjung (II), in Iinuma, J. (ed.), *Koreans in Japan: The Value of Their Existence in Japanese Society*, Kaifusha. (J)
- Yamazaki, T., 2001, Issues in Anglophone political Geography, *Zimbun-Chiri*, 53, 532-555. (J)
- Yoon, K., 2000, *The Ideas of Contemporary Korea: 1980s-1990s*, Iwanami Shinsho. (J)
- Yoshida, T., 1996, *A Study on Ensuring Process*

of Settlement Environment by Foreign Toyohashi. (J)
Residents in Japanese Metropolis, Toyohashi (J): written in Japanese
Gijutsu Kagaku Daigaku Kensetsu Kogakukei,